

## 즐겁게 일하고자 하는, 스스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기업

네트워크케이블 광통신부품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다.

즐겁게 일하고자 하는, 스스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기업. 그곳이 네트워크케이블이다.

네트워크 케이블(대표 박병용 [www.networkcable.co.kr](http://www.networkcable.co.kr))은 99년 1월 29일에 설립되어 광통신부품 및 광통신 관련 자재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다. 최근 국내의 시장 동향은 낙관적이지 않다. 우선 국내의 경우, 현재 IT 산업의 불황이 광부품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작년의 시장 수준에 비해 1/5 수준도 되지 않는 지경이다. 광통신 세계 시장의 50%라고 일컬어 지는 미국이, 최근 Lucent가 광 사업부문을 후지쿠라와 코닝에 매각한 상황이 대변하듯 불황의 한가운데서 헤어날지 못한 상황이고 일본도 이러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네트워크 케이블의 당면 과제는 현재의 불황기 속에서, 실속 있고 알찬 영업 전략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해외 판매망 확충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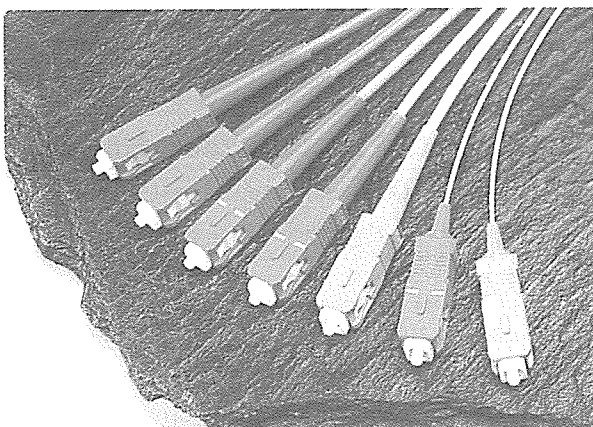
또한 연구소는 일본 시장에서도 통하는 우수하고 안정

화된 제품의 양산과 신제품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병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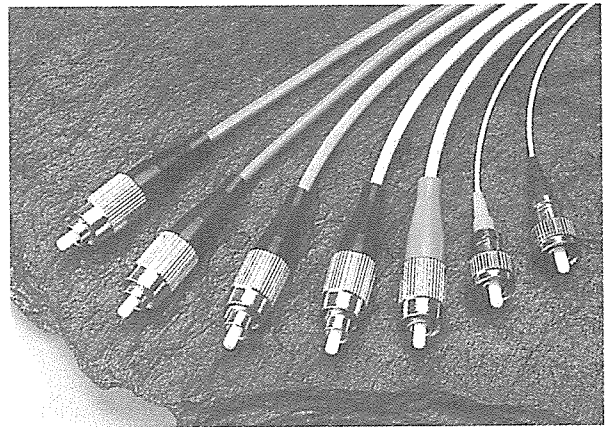
### 다양한 사양의 광통신용 부품 개발에 총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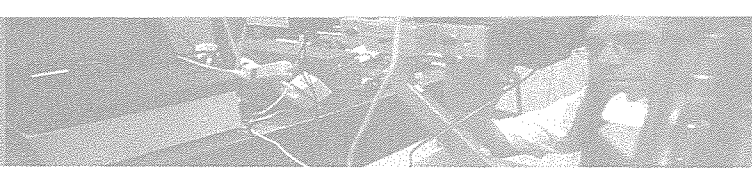
네트워크케이블의 주요 생산 제품으로 광접속함체 및 광통신 자재분야에서 지난 2000년 광접속함체를 개발하여 한국통신, 데이콤 등에 국내 최초로 품질인증 및 EM 마크(2001년 5월)를 획득하였고 미국, 중국 등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 및 광선로의 옥내와 옥외에 적용되는 다기능 함체를 개발 후 양산체제 구성해 기타 단자함, 분배함, 광성단케이블등을 개발하여 국내 우수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광통신용 부품 분야에서는 다양한 사양의 광점퍼코드, 광 감쇠기 및 광 Terminator 등 수동형 제품을 국내 최고의 공정기술을 바탕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는 광커플러, WDM, 가변광감쇠기, 광소자형 커넥터 등의 신제품을 글로벌 시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개발, 생산하고 있다.



▲네트워크케이블이 생산하고 있는 각종 점퍼코드





마지막으로 광기기장비 분야에서는 광통신 부품 및 선로 기술 등을 바탕으로 광스위치, 광링크, 광필터 등의 신기술제품을 개발 중에 있다.

###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경쟁력 확보

현재 불황의 한파를 피해가고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중국시장의 경우, 광 부품 사업에 있어서는 시장의 미성숙과 국내 업체들의 영업 인프라 미 확충 상태로 인해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계 관련자들은 현재의 불황은 지난 몇 년간의 과 투자로 인한 일시적이 현상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광통신 사업 컨설팅 전문가는 1920~30년 대에 미국 전 가구가 전력 망으로 네트워크화되었듯이 21세기에 진입한 현재의 미국은 Fiber To The Home의 진입 단계임으로 곧 시장을 회복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기도 한다.

이런 시장을 감안해서 네트워크 케이블은 무엇보다 사업분야 적재적소에 자율적이며 창조적인 인재 경쟁력을 통해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미래 인류가 누릴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만드는데 네트워크케이블이 노력하고 있다.

### 끊임없이 창조하고 변신해 나가는 기업

앞으로 네트워크 케이블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꾸준한 연구 개발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점퍼코드 및 광

감쇠기(Male to Female, In-line)의 대량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가변형 광감쇠기(Air-Gap, Filter) 및 광 Terminator의 생산체제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광커플러 및 WDM등을 개발 생산 중에 있다. 현재는 전기 구동형 가변 광감쇠기와 신형 광 커넥터, 광소자형 커넥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네트워크케이블 박병용사장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창조하고 변신해 나가는 기업이다. 현실에 안주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발전도 있을 수 없다. 이는 개인 뿐 아니라, 기업 더 나아가 모든 사회 공동체에 해당되는 것이다. 우리는 변화나 실패를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위한 지혜를 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시장 및 기술을 개척하여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곳, 미래를 향한 그 곳에 네트워크케이블이 함께 할 것이다.

〈취재 / 김현희 기자〉

